

의료대란 확산일로...의료진 번아웃·환자 불편 가중

종합병원 교수들이 회진·약 처방 등 전공의 업무 도맡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환자와 가족들만 피해” 분통

의대병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의료인들이 '번아웃'(Burn-Out·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 대거 이탈로 의료공백을 매우고 있는 전문의(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남대와 조선대병원 등 상급병원은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실을 가동하고 입원·외래 환자를 대폭 줄이면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불편과 피해는 더 심해지고 있다.

26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광주지역 한 의과대학 A교수는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진료와 수술을 돕는 전공의가 빠져나가고 빈자리를 채우는 기존 교수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하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모두 병원을 떠나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대학병원에 남은 의료진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A교수는 “전공의들이 모두 빠져 빈자리를 교수들이 채우고 있다”면서 “오늘 외래진료에서는 3명의 교수들이 문진에서부터 동의를 받는 것까지 직접 행하고 있다. 의사들의 공백으로 예약 환자를 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 홀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의사를 만날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지만 의료진으로서의 고난의 행군이다.

이날 처음 신장 투석을 시작한 김희연(여·56)씨는 “원래 전공의들이 하던 걸 교수들이 봐주고 있다. 회진도 교수들만 돌고, 처방도 교수들이 직접 하는 것 같다”면서 “교수들이 봐주니 환자 입장에서 좋지만 교수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날 담양에서 전남대병원을 방문한 정모(여·73)씨는 “오늘 검 결과를 보러 왔다.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언제 병원에 다시 와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에서는 예약 잡아주기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타 지역에서 겨우 시간을 내 병원에 왔는데 예약조차 안된다니 어처구니 없다. 의사와 정부 싸움에 결국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1일에는 의료대란이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여 환자와 가족들의 우려는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로 채용될 의과대학생들이 임용을 포기하고 3월 1일 전임의들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다.

전임의까지 병원을 떠날 경우 비상 체제로 유지 중인 현재 의료현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환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날 심장통증으로 전남대병원을 찾은 김모(여·78)씨는 “의료대란으로 약을 못 받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예약이 연기되지 않아 진료를 받았다”면서 “겨우 진료를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추가로 의사들이 더 빠져나간다면 환자 입장에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조선대병원에서 만난 최광호(68)씨도 “12일 전 겨우 대장 수술이 잡혔는데 혹시 이번 사태로 연기될까봐 매일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이라면서 “의사가 더 부족하면 수술이 더 연기 될텐데 응급환자들이 수술을 못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검경 “의료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광주지검 검·경 실무협의회

광주지검은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26일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과 합동으로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 광주·전남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참여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 관계자를 정부가 고발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 수사까지도 염두에 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전공의 사직·이탈 사태가 발생한 광주·전남 상급종합(3차)병원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26일에도 다시 병원을 찾아 점검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주 전남대병원 전공의 119명, 조선대병원 전공의 113명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추가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추후 불이행확인서를 받아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쿵’하면 인명피해...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광주사진작가협회 버스 사고

타이어 버스 덮쳐 2명 사망

“대처 못할 날벼락 사고 참혹”

광주·전남 5년 41건...치사율 28%

“비명 지를 겨를도 없이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최영태(57)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회사는 26일 광주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전남 발생한 사고를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그와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회원들이 탄 관광버스는 날벼락을 맞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며 차안으로 파고들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광주지회장 A(60)씨와 운전기사 B(61)씨가 숨졌다. 버스에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사진작가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최 이사를 포함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회원 37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는 주행 중이던 25t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져 관광버스를 덮쳐 발생한 것으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와 비슷하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최 이사는 “뽕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체가 갑작스럽게 앞 유리창을 뚫고 날아와 좌석 4열에 앉은 승객들까지 충격을 당했다”면서 “사고는 승객 모두 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갑작스러웠고 2차 가드레일 충격 이후에야 놀란 승객들의 비명소리만 들려왔다”고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이야기 했다.

이어 최 이사는 “사고로 앞문이 막혀 창문에 비치된 손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가까스로 버스에서 빠져나왔다”면서 “이후 다른 승객들도 간신히 창문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주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짐이 ‘결박 부실’, ‘과적재’ 등에 의해 고속도로 위에 떨어지는 사고를 말한다.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낙하물이 덮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지난 25일 오후 4시께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주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타고 있던 버스를 덮친 대형 화물차의 바퀴가 버스 뒷좌석에 박혀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원인을 과적으로 지적한다. 바퀴에 과도한 무게가 가해지면서 자동차 몸통과 바퀴를 고정하는 너트가 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낙하물이 큰 경우 사고도 대형사고로 발생할 위험이 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광주·전남에서는 총 41건의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의 치사율은 28%에 달한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전국 돌며 8차례 빈집털이 50대 순천서 붙잡혀

전국을 돌며 빈집을 털어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순천을 비롯해 경북 포항, 인천 등 전국을 돌며 빈집털이를 한 5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50분께 순천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됐다. A씨는 인근의 폐가로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 24일경 경북 포항에서 같은 수법으로 4000여만원 상당의 금괴를 훔쳤으며, 이후 7개월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충북, 인천, 경북, 전남 일대를 돌며 총 8회에 걸쳐 50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택가 대문을 직접 손으로 열어 보며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특정 범죄 기동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만기출소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